

금소법 D-30, 보험사는 지금... 조직개편 등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삼성생명, CEO 직속 조직 신설
교보생명, 권익보호 자문위 운영
NH농협생명, 실천 결의대회 실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메트로DB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보험사들이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전무급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을 강화해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에서 실시한 고객패널 ‘킵오프’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고객패널을 지난해 700여 명에서 올해 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그 밖

에도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도 신설했다. 기존 소비자상담역과 별개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전사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

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상품 개발부터 가입·유지·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 관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부터는 ‘나이스(NICE) 교보’ 등의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꼭 필요한(Needfu) ▲적시에 상품·서비스

를 제공하는(In time) ▲배려하고 보살피는(Careful) ▲감성적으로 교류하는(Emotional) 등의 앞글자를 딴 해당 캠페인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교보생명의 의지를 담고 있다.

NH농협생명도 최근 고객 중심의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 정착과 소비자중심 경영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해 눈길을 모았다. 결의대회는 최근 농협생명이 실시했던 사업추진전략 회의에서 제시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 본위의 신뢰 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다. 전국에 있는 임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행사에 동참해 뜻을 모았다.

농협생명은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부서도 확대했다. 소비자보호부서 내에 민원관리파트를 신설한 것이다.

DB손보는 최근 ‘뉴(New)소비자시

대’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 선포식은 사내 기획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부서가 참여해 전 직원의 소비자보호헌장 및 안전판매 준수서약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은 “3월 시행되는 금소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규제가 강화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와 대면이 힘들어진 만큼 세심하게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의 인사만 보더라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보험사마다 금소법을 대비해 세세하게 준비할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전 선포 및 조직 신설 등을 넘어 각 부서 내의 필수 사업 추진 방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백지연 기자 wkus0248@metroseoul.co.kr

‘신한 네오프로젝트’ 목표 100% 초과 달성

작년 대출·투자 목표 比 153% 실행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등 적극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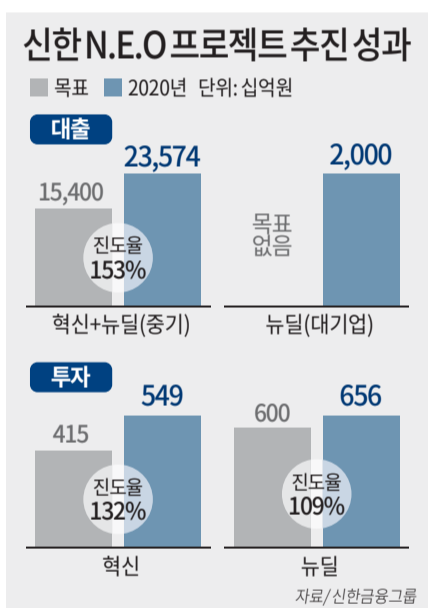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22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뉴딜 정책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의 2020년 대출 및 투자 목표를 10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6월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신성장산업금융지원 ▲신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 3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혁신·뉴딜 관련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은 23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작년 목표인 15조4000억원 대비 153%를 실행했다.

또 작년 연말까지 5개년(2019~2023) 기준 총 공급 목표인 78조원 중 35조원을 지원해 누적진도율 44.9%로 적정진도율 40%를 초과했다.

혁신 및 뉴딜 투자 분야에서도 전년도 목표 대비 대비 각각 132%(혁신 투자 목표 4150억원/ 투자 실적 5499억원), 109%(뉴딜 투자 목표 6000억원/ 투자 실적 6562억원)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다양한 미래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혁신성장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혁신 금융 플랫폼 완성을 위한 ‘트리플 케이 프로젝트(Triple-K Project)’도 추진하고 있다. 트리플 케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인천·대전 등 전국 단위에 그룹 혁신성장 플랫폼인 ‘신한 스캐어브릿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K-유니콘 육성을 위한 프로그

램 운영 등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뉴딜펀드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1월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에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대체투자운용이 참여했다. 기업투자펀드와 인프라투자펀드 부문 등 총 7700억원(신한금융 그룹사 출자액 2850억원을 포함) 규모의 펀드 결성을 제안했다.

이달 4일에는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미래차 및 산업디지털 분야 펀드 조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에 신한자산운용이 올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신한 디지털뉴딜BTL펀드, 신한벤처투자 역시 지난해 말 1000억원 규모의 뉴딜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뉴딜펀드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320억원을 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원 KB 기업패키지 확대... 中 小 惠 택 强 化

KB금융, 중소기업 지원

KB금융그룹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전용 ‘원(ONE) KB 기업 패키지’를 기존 4종에서 7종의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품 리뉴얼은 각종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할인 등 우대 혜택을 강화했다.

KB금융은 기존 4가지 상품 ▲원 KB 기업 우대대출 ▲원 KB 기업종합보험 ▲원 KB국민 기업신용카드 ▲원 KB캐피탈 등에 중소기업의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3가지 상품 ▲원 KB사업자통장 ▲원 KB국민 기업체크카드 ▲원 KB저축은행 사업자대출 등을 추가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원 KB 기업 패키지’ 상품은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그룹 내 계열사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객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이와 같은 계열사간 협업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고객이 경영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적의 원 스톱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객의 기업경영에 체감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원 KB 기업 패키지’ 상품 리뉴얼의 목적”이라며 “중소기업 고객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삼성금융사, 스타트업과 금융 혁신 사례 발굴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개최

삼성 금융관계사들이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한 금융 혁신 성공사례 발굴에 다시 나선다.

삼성생명, 화재, 카드, 증권, 벤처 투자 등 삼성 금융관계사들은 ‘제2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은 2019년 1회 대회를 통해 ‘위힐드’, ‘에이

젠글로벌’, ‘왓셋’, ‘티클’ 등 금융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성장하는 금융의 미래를 열다’란 슬로건 아래 대회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기업을 선정한다. 진출 기업은 삼성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솔루션과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올해 9월 발표회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스타트업의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 본선에 진출하는 13개의 스타트업은 지난 대회 때보다 2000만원 상향된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삼성금융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금융사별로 1팀씩 선발하는 우승 스타트업은 1000만원의 추가 시상금과 지분투자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 1회 대회 우승팀인 ‘위힐드’는 삼성생명으로부터 1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아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NH농협銀, 농협 창립 60주년 이벤트

주택청약 신규 가입자 대상

NH농협은행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출발, 희망찬 새학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1년 한 해 고객의 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응모 고객 중 총 2021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희망찬 새학기,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을 응원해!’는 만7세~18세의 청소년, ‘새로운 출발, 청춘을 응원해!’는 만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과 함께 농협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별로 각 611명씩 추첨해 LG 노트북, 갤럭시버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힘내요 대한민국! 힘내요 우리!’ 이벤트는 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799명을 추첨해 또래오래 치킨 교환권을 제공하며, 모든 이벤트 간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농협은행 이연호 개인고객부장은 “고객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500만명을 달성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반을 마련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